

동 스테이크
후반기 대회



대회 광경

서울 동 스테이크는 86년 10월 18일, 19일 이틀간 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야곱 디야가 장로의 감리로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를 가졌다. 대회장은 미아 와드였고, 스테이크내 여섯 와드와 지부에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영적인 양식을 취할 수 있었다.

디야가 장로는 첫날 토요일 대회에서 모든 회원은 저마다 자신의 리아호나를 가지고 있으며 이 리아호나를 움직이는 동력은 신앙, 근면, 자신의 주변에 대한 통찰 및 끊임없는 기도라고 말씀했다.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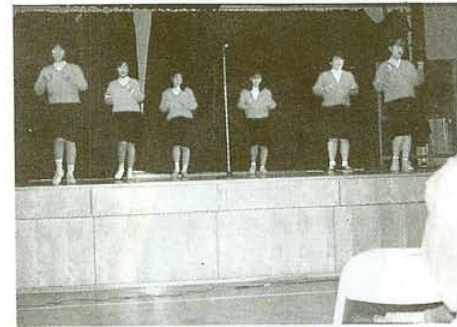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일성도 역원들에 건주어 새롭게 해석하면서 이 비유의 핵심이 “실천하는 복음”임을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서울 지역 대표인 김 창선 장로는 “희생은 자신의 영생의 기초를 다지는 복음”임을 회원들에게 환기시켰다.

한편, 이 대회에서 도봉 와드의 서 정희 형제는 대체사 직분에, 도봉 와드의 채 규재 형제와 미아 와드의 곽 경기 형제, 정 호광 형제는 멜기세덱 신권을 받고 장로 직분에 각각 성임되었다.

함께 나눌 때

서울 북 스테이크는 녹번 와드에서 청녀 창립 기념 117주년 기념 모임인 “함께 나눌 때”를 송 평중 부장의 감리로 가졌다.

11월 27일 오후 5시부터 여덟 개 와드와 지부의 청소년 회원 200여 명이 함께 모여 가진 이번 청녀 발표회는 그동안 청녀 회원들이 갖고 있던 숨은 솜씨를 발표할 수 있는 작품 전시회를 겸한 모임으로, 출품작 중 세 점이 스테이크 부장으로부터 작품상을 받았는데 이들은 녹번 와드의 김 유경 자매, 모래내 지부의 유 현진 자매, 홍제 지부의 조 수진 자매 등이다. 스테이크에서 매년 계획하고 있는 청녀 창립 기념 모임은 내년에는 더욱 훌륭한 솜씨의 자랑과 재능을 다른 회원 및 구도자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다짐한다며 각자 준비해 온 다과를 함께 나누며 아름답고 따스한 마음으로 끝을 맺었다.



송년 음악회

부산 스테이크 울산 신정 와드의 청소년 회원들은 12월 27일 오후 6시 그들의 젊음의 역량을 힘껏 발휘할 기회를 가졌다. 저물어가는 한 해를 돌이키며 울산 지역의 청소년 회원들의 우정 증진을 위해 마련한 송년 음악회는 기존의 말일성도 청소년 음악회와는 장르를 달리한 기획 프로그램이었다.

세종대왕 시대에 정인지는 “아악보”의 서문에 “음악은 성인의 성전들을 기르며 신과 사람을 화하게 하며 하늘과 땅을 자연스럽게 하며 음양을 조화시키는 방법이다”하였다.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 25편 12절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는 나를 즐겁게 하나니, 의인의 노래는 내게 바치는 기도니라. 저희 머리 위에 축복을 주어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신정 와드 증창단과 월계반 증창단의 발표에 이어 컴퓨터 음악을 텔레비전 영상을 통해 보며 첨단 음악을 감상하는 기회도 가졌다.

또한 청남 청년 회원들은 기타 연주 송년시 발표, 시화, 석화, 사진, 수예, 엽서, 카드 전시회 등 그들이 평소 갖고 닦아온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였다.



86. 12. 27



강서 스테이크
후반기 대회

지난 11월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화곡 와드에서는 박 내정 스테이크 부장이 감리하는 가운데 1986년도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토요일 모임에서는 교리와 성약 44편 6절의 “교회 복지 프로그램”을 주제로 하여 참석한 많은 회원들이 복지 프로그램을 다시금 깨달아 새로이 각오를 다지는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일반 총회에서는 그동안 스테이크 부장단 제 1보좌로 수고하던 이 광정 형제가 해임되고 화곡 와드 감독이었던 김 두성 형제가 새로이 부름을 받았다.

대회 말씀으로는 귀한 선교사인 김 미현 자매와 최근에 개종한 이 영희 자매의 간증이 있었고 공항 지부장인 정 지현 형제는 복지 프로그램에 관하여 말씀했으며 스테이크 축복사인 김 광호 형제는 특히 “영적인 복지”를 강조하였다.

이번 대회에 서울 서 선교부장인 도 길희 부장은 선교 사업과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을 들려주었다. 대회의 감리자인 박 내정 부장은 물질적 복지에 뒷받침되는 영적 복지를 강조하였으며, 스러운 경전을 믿게 되어 마음에 큰 변화를 일게 한 주를 믿는 신앙과 회개로 안내된 자들은 모두 그 믿음이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로 인하여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두 열 세 명의 형제들이 신권 성임을 받았다.

신길 와드의 박 기성 형제, 부천 와드의 이 재기 형제, 양 호석 형제가 대제사 신권을 받았으며 화곡 와드의 장 길환 형제, 강서 와드의 손 미석 형제, 부천 와드의 김 연화 형제, 정 광수 형제, 흥 종천 형제, 신정 지부의 오 준호 형제, 운 기포 형제, 신월 지부의 김 용진 형제, 공항 지부의 조 동식 형제, 천 대호 형제는 장로 신권을 각각 받았다.



대구 스테이크 후반기 대회

1986년도 하반기 대구 스테이크 대회가 박 원걸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하에 12월 13일, 14일에 걸쳐 수성 와드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그동안 수고했던 전 정신 제2보좌가 해임되고 강 경구 형제가 제2보좌로 부름받았다.

토요 대회에서는 “다시 돌아오라는 권유”와 “복지 원리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도움이 됨”이라는 말씀으로 주제를 삼았으며, 일요일 대회는 교리와 성약 132편 8절의 말씀 “보라, 나의 집은 질서의 집이요, 혼란의 집이 아니니라”를 주제로 말씀을 들었다.

특히 주제 말씀으로 주변을 정리한다는 것은 생각, 느낌, 확신과는 다른 것으로서 실제로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 우리가 보다 나은 상태로 발전하기 위한 동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박 원걸

스테이크 부장은 우리가 화평을 얻으려면 모든 이들의 가슴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기주의를 뿌리 뽑아야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함으로써 많은 성도와 구도자들이 공감을 얻기도 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일요일 오전 총회를 갖기에 앞서 복지에 관한 특별 모임을 가져, 성도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복지 원리에 관한 말씀을 들었다.

약 600여 명이 참석한 이 대회에 하퍼 부산 선교부장이 초청되었으며, 선교 지역으로 새로이 개설된 영천과 안동 지역에서 회원들이 참석하여 대구 스테이크 회원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이 대회에서 박 동달 형제가 대제사로, 김 영수 형제, 이 춘식 형제가 장로 신권을 받았다.

음악을 통한 예배

한 해가 저물어가는 11월 30일 안식일 저녁 6시부터 서울 동 스테이크 미아 와드에서는 음악을 통해서 영성을 발전시키고 한 해를 돌아보기 위한 음악 예배 모임을 가졌다.

교회 회복 초기부터 합당한 음악이 성도들에게 많은 권고와 위안과 영감을 주었음을 상기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합당한 음악을 통하여 신앙을 재점검해 보고 격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모임이 준비되었다.

모로나이 중창단과 인디펜덴스 중창단의 연주가 있었고, 초등학교 중창 발표 및 서울 선교부의 화이트헤드 장로가 제작한 “위대한 그리스도”라는 슬라이드를 감상했다.

복음을 주제로 한 창작곡과 우리가 즐겨 부르는 애창가곡 “보리밭”, “아 목동아”가 연주되어 아름다운 가사와 화음이 어우러져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다.

성도들은 음악을 통해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방법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으며 이번 모임에는 교회 교육 기구 대표인 박 병규 장로가 처음부터 자리를 함께 했다.

